

돈황 석굴, 디지털로 다시 태어난다

천 년 전 불심, 예심으로 빚어낸 돈황 석굴이 디지털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AFP는 27일 "돈황 석굴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돈황 아카데미(Dunhuang Academy)가 지난 2000년부터 미미 게이츠(Mimi Gardner Gates)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돈황 석굴 보존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돈황은 중국, 그리스와 로마, 이슬람 그리고 인도의 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곳"이라고 강조한 미미 게이츠(前 시애틀 예술박물관장)는 "역사·미술학자들이 '역사가 이곳에 있고, 예술도 이곳에 있다(History is here, art is here)'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곳이 돈황"이라며 "돈황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석굴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벽화들이 훼손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미미 게이츠는 빌 게이츠(Bill Gates)의 부친인 윌리엄 게이츠(William H. Gates)와 1996년 결혼했다. 이는 돈황 석굴 보존 프로젝트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참여한 배경이다.

AFP는 미미 게이츠의 말을 인용, "석굴 안벽은 다량의 소금과 염화물과 있는데, 석굴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늘어나면서 석굴 내부의 습도, 온도, 이산화탄소 등도 함께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석굴 안벽에 습기가 차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석굴 안벽이 수분을 빨아들이고 내뿜는 순환과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돈황 석굴 보존 프로젝트에는 불교미술·조명·컴퓨터·영상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6개 팀이 석굴 전체를 컴퓨터 영상으로 옮기고 있다.

내부 벽화 관광객 증가로 손상...훼손 위기

마이크로소프트사(社) 2000년부터 지원

정이 가속화 되면서 채색 벽화의 훼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간쑤 성(Gansu province) 지방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돈황 석굴에는 80만 명이 다녀갔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하루 적정 방문자 수는 최대 3000명. 지난해 10월 공휴일에는 하루 18000명이 다녀갔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관광객 수 제한을 고려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돈황 석굴

관광객은 내(중국)·외국인으로 양분되는데, 관광객 수를 제한할 경우 내국인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아이들은 돈황을 통해 옛 지식을 배우고 있다"고 말한 네빌 아그뉴(Neville Agnew·돈황 아카데미) 박사는 "그들이 성장해 돈황을 직접 방문하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만약 그 길이 좁아진다면, 그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돈황 석굴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돈황 석굴 보존 프로젝트에는 불교미술·조명·컴퓨터·영상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6개 팀이 석굴 전체를 컴퓨터 영상으로 옮기고 있다.

이 작업이 진행되는 석굴 내부는 부산하다. 선명한 영상을 얻기 위한 클리닝(cleaning) 과정이 진행되면, 카메라 동선을 잡아주는 레일이 설치된다. 열 발생을 최소화 한 특수 조명이며, 이미지 보정 및 저장에 위한 컴퓨터 그래픽 장비도 설치된다. 1400년 전에 그려진 붓다, 보살 등이 밝고 선명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 때부터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이 디지털로 환생하는 순간이다.

"1990년대 초 처음 거론 보존 프로젝트는 기술 한계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 지원에 힘입어 시작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 왕 후둥(Wang Xudong) 총장은 "돈황 석굴의 벽화는 모두 합쳐 놓으면 4.5000㎡, 길게 나열하면 15km에 달하며, 이중에는 높이 3미터에 달하는 매머드 벽화도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보존 프로젝트는 앞으로 4년은 더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AFP에 따르면, 돈황 석굴 인접지역에서 돌 형태의 극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내년 10개 석굴에 대한 영상이 돌 극장에서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중 지도자들 퇴임후 불교에 심취

장쩌민, 좌선으로 위장병 치유...리우이환 "가족들이 불교 신자"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리우이환(李瑞環) 전 정치국 상무위원



귀보순(郭伯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퇴임 후 불교와 도교 등 종교에 몰입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중국 광저우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남방주말(南方周末)은 5월 30일 "현직에 있을 때 워낙 바빠 취미 활동과 여가를 즐기지 못했던 지도자들은 퇴임후에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개인으로 돌아가 종교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불교에 심취한 대표적인 지도자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다. 그는 재임때부터 명산의 고찰을 찾아다니며 고승들과 불법 및 좌선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방명록에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 전 주석은 재임중 허베이성의 유명 사찰인 바이린찬스(栢林禪寺)를 방문해 당시 주지인 정후이(淨慧) 스님에게서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좌선으로 위장병을 치유한 경험을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장쩌민 집권 시절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낸 리우이환(李瑞環)은 최근 출간된 <견해와 실법>이라는 책에서 "2008년 8월 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때 대만 불교계 지도자 성원(星雲) 대사와 불교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은 신자가 아니지만 어머니와 며느리 등 가족들이 불교 신자"라고 말했다.

귀보순(郭伯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불교에 관심이 크다. 그는 지난 4월 11일 숭산 소림사(少林寺)를 방문해 승용신(釋永信) 방장의 설법을 듣고 불교유적을 둘러본후 소림 무공 시범을 참관하면서 즐거워했다고 한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태국 불교 쇠퇴는 사원역할 감소

<종교와 윤리> 지 토론 진단...승가교육 정비·수행 생활화

태국 불교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전체 인구의 95%가 불교도이며, 사방 곳곳에 사원이 들어서 있고, 정신적 지도자인 국왕 역시 독실한 불교도인 태국에 대해 이러한 의문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Religion & ETHICS(종교와 윤리)> - Newsweekly) 지가 24일 '태국불교의 쇠퇴(Decline of Buddhism in Thailand)'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 기사를 게재해, 주목된다.

존 버트(John Butt·Payap University) 교수, 프라 본추이(Phra Boonchuey) 스님, 럭키 세버슨(Lucky Severson·언론인) 박사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사원역할 감소 △물질주의 팽배 △단기출가 외면 등이 20년 사이 태국불교 쇠퇴의 원인으로 진단됐다.

"태국 사회에서 사원의 역할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한 버트 교수는 "과거 사원은 단지 부처님을 모시고 예불을 올리는

곳의 한계를 넘어 공동체의 삶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제 사원은 복을 빌기 위해 잠시 들리는 곳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프라 본추이(Phra Boonchuey) 스님은 "태국은 현재 가족계획 정책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며 "이는 젊은 층 인구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단기출가 전통이 사라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프라 본추이 스님은 "자녀의 수가 줄어든 만큼, 그 자녀의 사회적인 출세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커지게 되고, 이는 단기출가의 전통을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럭키 세버슨 박사 역시 "과거에는 많은 소년들이 사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고, 승려가 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 태국의 무료공공 정책이 시행되면서 '탈(脫) 사원'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태국에 가족계획 등 무료공공정책이 시행되면서 탈(脫)사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태국의 승려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태국불교의 변화를 요구했다.

존 버트 교수는 승가 교육이 경전을 암송하는 암기식 위주에서 벗어나, 스님들이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육 방법론(△승가교육 정비)을 찾기를 주문했다.

럭키 세버슨 박사는 "무아의 전통적인 가치가 개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이는 사회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현대화(△수행 대중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소비 문화"라고 지적한 프라 본추이 스님은 "태국불교계는 이에 대해 교리적인 응답을 시도(△교리 현대화)하고, 물질의 빚을 피하는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캐나다, 부처님 오신날 '베삭데이' 선포

롭 포드 시장 선언문 발표, 양일 스님 명예회장으로

캐나다 토론토 시가 부처님 오신 날을 공인하고 매년 5월 25일을 베삭데이(Wesak Day, 부처님 오신날)로 선포했다. 캐나다에서 부처님 오신날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인된 것은 처음이라 의미가 깊다.

온라인 불교뉴스인 미주한국불교(koreanbuddhism.us)에 따르면 5월 21일(현지시간)토론토 롭 포드(Rob Ford) 시장은 최근 부처님 오신날을 공인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캐나다 불자협의회(Buddhist Council of Canada)의 제안으로 심의를 거쳐 발표된 선언문에서 롭 포드 시장은 "1999년 UN 총회를 통해 공인된 베삭 데이는 불교인들로 하여금 자비와 평화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선의와 헌신의 메시지를 증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캐나다 불자협의회는 한국사찰인 대각사의 양일 스님이 명예회장으로 있다. 양일 스님은 30년 전 한국불교 불모지였던 토론토에서 전법과 포교를 해왔으며 20여



롭 포드 캐나다 토론토 시장

명의 헌진인 제자들을 양성하는 등 캐나다 한국 불교의 명사로 존경받고 있다.

캐나다 불자협의회 회장인 수안다 수구나시리교수는 "토론토 시에서 불교를 살아 있는 종교

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과 함께 토론토시는 부처님 탄신일(베삭데이)을 시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다.

부처님 오신날 선포를 이끈 롭 포드(44) 시장은 2010년 시장에 당선, 커뮤니티 워커로서 구세군 등의 단체에서 다양한 봉사 경험을 쌓아왔으며 취임후 개인 차량세 절해, 시장실 예산감축 등의 시민을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나는 기자

정체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요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인.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인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사여래도량
보금정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영남범음범패 제2기학인모집

-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 49재, 모든의식)
- ▶ 작법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 교육과정 : 6개월
-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 교육대상 : 제한없음
- ▶ 개강일시 : 2013년 6월 17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까지)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충무원 (불교회관)
- ▶ 문의처 010-5065-5690 011-887-4591

사) 한국미륵불교 부설
불교대학 범패원

고(古)전물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 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이런 중단이 되고 싶습니다!

맑고 깨끗한 중단...
다 함께 수행하는 중단...
품위와 품격이 다른 중단...
너와내가 아닌 우리 하나되는 중단...
미래 불교에 선두에 설 수 있는 중단...

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禪大韓佛敎 曹溪宗

중단 가입문의 (02) 959-1825